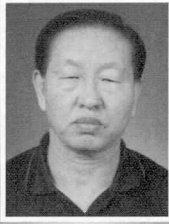


체면이라는 것

Decency Itself

20
사



글 | 金圭麟
(Kim, Kyu Lin)

토목시공기술사,
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주)대한이엔씨 전문위원.
E-mail : kimkyulin@hanmail.net

나는 "기술사 시험의 해답 예"의 초판(국립중앙도서관 도서 번호 KMO860945)을 낸 후 어느 회사의 한 사보 편집자가 원고를 청탁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글을 썼다.

어느 누구도 마찬가지로겠지만, 결과에는 관계 없이 글을 쓸 때에는 힘을 들이게 마련이다. 과연 그 글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쓰는 동안에는 피를 말리며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마치도 몸집이 큰 사자가 작은 토끼 한 마리를 사냥하면서 사력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빚어진 글이 마음에 들 때에는 그런대로 조그만 기쁨을 맛보게 되지만, 그렇지 못 할 때에는 좀 과장해서 말하자면 살맛까지 잃게 된다.

살맛을 잃게 되는 그 처참한 몰골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일단 자판 앞에서 마우스를 잡았다 하면 있는 힘을 다하게 되는지도 모른다. 현대 글이란 것이 묘해서 짧다고 쉽고 길다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둘 다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기 어려

울 것이다. 어쨌든 사보 편집자가 원하는 날짜에 맞춰 짤막한 글을 써가지고 약속 장소인 전통찻집으로 나갔다.

나에게 원고를 청탁해준 그 고마운 사람은 어떤 인물일까? 하는 일말의 기대와 함께...

그런데 약속시간이 지나도 예의 편집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약속이 빗나가게 됐나보다 하면서도 상대방이 나타나기를 기다렸는데 한 20여분 지나 나를 찾는 손님이 있었다. 원고를 청탁해 준 편집자가 바로 그 사람이었다.

기업체에서 일하는 젊은이답게 용모가 단정했다. 그는 약속시간에 늦은 것을 몹시 미안해했으므로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그런 일도 있게 마련이니라고 좋게 말해 주었다.

그리고는 준비해 간 원고를 건넸다.

그러자 편집자는 다짜고짜 그 원고를 읽기 시작했다. 이거 이만 저만 난감하지 않았다.

평소에 안면이 있는 사이라면 몰라도 불시초면에 당하는 일이라 보통 황당한 것이 아니었다.

지극히 사무적인 사고방식이라면 하나도 나무랄 것이 없었다. 도리어 그게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태도란 그런 것인 지도 모르겠다.

또한 서구적인 의식에서는 그것이 더 권장 받을 만한 태도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 사회에는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서구적인 것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이 만연돼 있다.

돈을 지불하고 원고를 사자는 것이니까 마음에 안 들면 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논리라고 한다면, 전화를 받고 청탁에 의해 글을 쓴 자의 권익은 묵살되

어도 좋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호혜의 정신에도 어긋날 뿐더러 형평의 원칙과도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그러나 문제의 편집자는 원고를 다 읽고 나서 "좋습니다"하는 것이었다.

* 이견 또 무슨 해괴한 소리인가.

나 역시 상대방의 말꼬리나 잡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남의 실수를 용서 못할 만큼 융색한 사람도 아니지만 상대방의 태도에는 그저 불쾌하기 짝이 없었다.

티놓고 말해서 한 때는 일간지의 「기술사코너」에 짤막한 글을 쓴 적도 있고 몇 번이나 증보판을 낸 잘 나가던 이공서적을 출판도 했고 현재에는 기술의 최고봉인 한국기술사회 편집위원을 하고 있어 편집자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는 내 앞에서 그것도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다른 손님들도 있는 가운데 원고를 사정없이 읽다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

더구나 한술 더 떠서 다 읽고 나서 하는 말이 '좋습니다'라니, 아니 그러면 자기가 내 원고를 평가감정하는 위치에 있던 말인가.

나도 새파란 사람이 그런 태도로 나오는 데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나 역시 편집자의 권한을 무시할 마음은 추호도 없지만, 나이도 새파란 사람이 그런 태도로 나오는 데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 실례인 줄 알면서도 사보편집경력이 얼마나 되느냐고 물었더니 상대방은 5년이 넘었다고 당당히 대답했다. 그렇다면 지나간 5년이란 세월 동안 임자를 못 만났단 말인가.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그 젊은 편집자를 타하기에 앞서 하루가 다르게 급속도로 변

모해 가는 세대에 스스로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놀람은 신선한 놀람이 아니라 불쾌한 놀람이었다. 사람에게서는 동물에게서는 찾을 수 없는 체면이라는 것이 있다.

있는 힘, 없는 힘을 다해 원고 쓴 사람의 체면도 생각해주면 얼마나 고마울까마는 안면 몰수하고 면전에서 글을 읽어 대는 그 뱃심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는지.

과거 성질이 팔팔했던 시절이었다면 원고를 회수해 넣고 귀찮이라도 갈겨 주었겠지만, 그레본들 세대가 바뀔 일도 아니지 않는가.

그래, 그대도 언젠가는 체면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겠지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불쾌했던 감정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다. 좀 신선한탄 같긴 하지만 그래도 명색이 글 쓰는 자로 자처하면서 기술사로서 묵묵히 사십여 년 간 일해 왔다.

그렇다면 갈수록 보람 있고, 그리고 더욱 희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심정이다.

땀에는 남이 읽어서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글을 써보자고 몇 번이고 다짐해 보지만 이렇듯, 최소한의 글 체면조차 세워주지 않는 잔인한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전혀 없지는 않다. 네가 뭘데 하고 다잡는다면 할 말이 없을지도 모르되 개뿔이나 편지 한 장 제대로 쓰지 못할 위인들이, 그것도 줍디줍은 어쭙잖은 편집자들이 공들여 쓴 남의 원고를 면전에서 읽어 대고 좋다 나쁘다 평까지 해대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기술사회의 김경수 과장처럼 아직도 예의 바른 올곧은 편집자들이 더 많다는 사실에 다소의 위안을 찾을 뿐이다.

(원고 접수일 2008년 4월 10일)